

이건희 IOC 위원 사면 복권을 위한 탄원서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9. 11. 23 (월)

제 출 자 : 김진석 의원외 6인

1. 제 안 이 유

- 가. 2018 동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동계올림픽의 가치를 넘어 한국을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 나. 우리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 하고 있으나, 국제적 환경은 도시 간 경쟁의 차원을 넘어 국가간의 유치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
- 다. 강력한 정부의 지원 및 유치의지에 힘입어 유치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IOC위원을 통한 유치활동은 다른 후보도시들에 비해 가장 큰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라.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IOC 위원만이 IOC 위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위원들의 활동이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에서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문대성 위원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뿐, 1996년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건희 위원은 지난 해 7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뒤 IOC 위원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상황에 놓여있음.
- 마. 이에 IOC내 명망이 높고 과거 2010,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을 통해 다양한 인맥과 친분을 구축한 이건희 위원이 조속히 활동을 재개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

2. 주 요 골 자

- 가.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후보도시간 유치활동 상황 설명
- 나. IOC 위원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 설명
- 다. 이건희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

탄 원 서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의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한 세계에서 인정하는 고품격 국가의 건설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에는 직접 평창을 방문하셔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시찰하시는 등 정부의 유치의지를 대외에 표명해 주신 것은 이제 본격 유치 활동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매우 의미있고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두 번의 도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지도와 자연조건, 경기시설 등으로 「준비된 평창」을 내세워 세 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이고 국민들의 기대 또한 남다른 만큼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대한민국의 희망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는 단순한 동계 올림픽의 가치를 넘어 한국 올림픽의 완성과 세계3대 빅 스포츠 대회를 모두 치르는 것으로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 차원의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2018 동계올림픽 유치전은 한국(평창)과 독일(뮌헨), 프랑스(안시)의 3파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IOC 위원들을 앞세워 강력한 유치경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정부의 지원과 유치 의지에 힘입어 유치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으나, 자국의 IOC위원을 통한 유치 활동은 다른 후보도시들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가장 큰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의 관건은 두말할 필요없이 “IOC 위원들에게서 얼마만큼의 표를 얻느냐?”가 관건으로 IOC 위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위원들의 활동이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에서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문대성 위원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뿐, 1996년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건희 위원은 지난 해 7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뒤 IOC 위원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상태이며, 정부의 사면 복권이 있기 전까지는 IOC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또한, 경쟁도시인 독일 뮌헨이 토마스 바흐 부위원장을 포함해 3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고 프랑스 안시도 2명의 중진급 위원이 활동을 펼치고 있어 우리 평창은 현재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또한 법에 의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IOC내 명망이 높고 과거 2010,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다양한 인맥과 친분을 구축한 이건희 위원의 활동 부재 상황은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가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통하여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건희 IOC 위원이 국내에서 사면을 받게 되면 관례에 따라 IOC 위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2007년도에도 IOC 위원이었던 박용성 현 대한체육회장이 정부의 사면을 받아 IOC 위원에 복귀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면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IOC위원들이 평창을 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는 것이 혹여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한편 조심스런 마음입니다만,

2018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반드시 유치하고자 말겠다는 저희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2018 평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넓은 관용과 선처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통령님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일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